

인터뷰-제16대 총장 예비 후보자

“4차 산업혁명 발 맞추는 실천적·미래지향적 대학 만들 것”

장성구 예비 후보자

정리: 김수혁 기자 sherk@khu.ac.kr

Q1. 예비 후보자 등록 계기는.

우리학교는 1949년 2월 15일 미원 조영식 박사가 설립해 올해로 개교 70주년을 맞게 됐다. 현재 우리학교는 규모 면에서 22개 단과대학, 3개 학부, 86개 학과와 14개 대학원으로 구성된 재학생 34,000여 명과 연간 통합 예산 1조 3,000억 원의 큰 조직으로 성장했다. 전임 총장들을 비롯한 경희인들이 노력한 결과다. 이번에 실시하는 총장 선출의 기회와 문화가 대학 발전의 큰 전환점이 돼야 한다. 이제 경희의 창학이념을 바탕으로 한 실천적 철학을 우리학교의 정체성으로 분명하게 확립해 나가야 한다. 지난 10여 년의 학교 발전사는 분명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미래를 위해 오늘날 주어진 우리의 사명은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 등 인재상의 변화를 강력히 추구하는 것이다.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Homo Cooperatio(인공지능과 협업하는 인류)’로서의 삶을 배워야 한다. 학생들이 살아갈 앞날의 삶에 걸맞은 교육이 이뤄지는 미래지향적인 대학을 만들겠다. 경희의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존재 가치를 느끼고 자존심을 갖도록 할 것이다. 한국문단에 등단한 시인으로서 감성에서 우러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평상의 마음으로 경희를 위한 모든 지혜를 구하겠다.

Q2. 최우선 정책은.

미래 대학의 중심에는 인공지능(AI)이 있다. 학생들이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알고리즘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전공학과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AI 교육과 언어학습을 실시하겠다. 실용적 지식 교육을 통해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겠다. 또 ‘경희백년전략위원회’를 설치해 경희의 미래를 열겠다. 신뢰와 신의, 화합을 기본으로 대학을 운영할 것이다. 보직자 중심으로 대학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 구성원들이 운영에 적극 참여하는 열린 대학을 만들어 가겠다.

Q3. 재정 확충 방안은.

우선 기부금 모금의 확대를 추진하겠다. 기부금 유치를 위한 전문 업체를 활용하고 기부금 전담 CFO를 임명하겠다. ‘존엄성 있는 임종 프로그램’과 같은 신규 사업을 개발하고 기업 단위 기부금 확보, 기부자 예우 개선, 기부금 운영체제 개선을 이루겠다. 두 번째로 법인, 대학, 의료원의 협력 강화를 통해 법인의 KMC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키겠다. 셋째, 산하 의료기관의 혁신적 경영개선도 펼쳐가겠다. 학교 기업의 창업 활성화, 산학협력단의 연구비 확보 활동을 지원, 외국인



학력

경희대 의과대학 졸업(의학사), 인제대 대학원 졸업(의학박사)

주요경력

서울 의학계열 거버넌스추진위원회 위원, 경희의료원 종합기획조정실장, 경희대 병원장, (사)대한의학회 회장,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

“

대학 거버넌스 추진 위원, 경희의료원 병원장 등 업무로 총장으로서 대학 경영, 행정에 도움 될 현장경험이 갖췄다

”

학생 입학증원도 재정 확충 방안으로 가져갈 계획이다.

Q4.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방향과 원칙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는 재정적인 문제 해결이 뒷받침돼야 한다. 대학의 이념 실현과 사회적 이슈의 창의적 해결을 목표로 구성원들의 이해와 협조 속에 현실과 합리에 기초해 원칙을 세워나가도록 하겠다.

Q5. 교육 혁신의 핵심은 무엇인가.

‘19세기에 고안된 형태의 교실에서, 20세기에 태어난 교사들이, 21세기를 살아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의 모습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본다. 이같은 상황을 극

복하기 위해서는 ICT(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를 활용한 학습 환경 개선으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에 주력하는 등, 학교가 지향하는 인재상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대학의 모든 학과, 모든 교육과정에 AI가 스며들도록 해야 한다. 인문학 발전 역시 AI 기반 학습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복수학위제를 확대 실시하고 직업 마인드 정립에 치중하는 교육인 ‘Convenience University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겠다. 젊은 세대의 사고에 맞는 직업관을 가르치고 직업 다변성에 대비한 학습법도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대학의 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겠다. 지식의 사회적 책무를 실천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지구사회봉사단의 역할을 증대시키겠다. 사회에 열린 대학, 사회가 의지하는 대학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

Q6.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구체적 지원책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15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등록되어 있고 우리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은 5,700여 명에 이른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학생이 우리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 대학이 그만큼 국제화 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으로부터 대학의 발전 동력을 구하고 우리 학생들의 국제화 역량을 양성하는 기회로도 삼아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서도 몇 가지 개선안을 파악해 한층 국제화된 대학

의 면모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 유학생을 위해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 있는 학교 분위기를 만들고, 유학생 유치 및 교육의 목표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유학생을 위한 실질적 교육여건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정착시키고 유학생의 어학 실력 향상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다. 내국인 학생과의 교류를 위한 ‘글로벌 버디’ 제도를 확충하고 대학의 모든 유학생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부서를 만들어 운영할 것이다.

Q7. 연구 역량 강화 방안은.

기본적으로는 연구과제 수탁 지원과 학과 간 융합연구 발굴, 지원이다. 우수한 대학원생 유치 역시 적극 추진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에 따라 연구자를 지원하며 보직자 중심 대학이 아니라 연구자 중심 대학으로 만들겠다. 우수 연구 교수에게 조기승진, 정년연장 혜택을 제공하겠다. 나아가 ‘경희백년전략위원회’를 설치해 연구중심대학으로 노벨상에 도전하는 기반을 조성하겠다.

Q8.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방안은.

학부과정에서 교수나 대학원생의 연구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캡스톤 디자인’ 과목을 확대하고 교내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우수 논문 공모도 강화하겠다. 대학원 진학을 원하는 학생을 위한 학과별 맞춤형 과목 개설과 학부생 연구 인턴제 도입도 추진하겠다.

Q9. 소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혁신적인 정책 제안 공모 및 인센티브제 도입, 총장과 온-오프라인 대화

방 운영과 구성원의 정책조정회의 참여 등으로 정책 수립 과정에 구성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 총장 직속 ‘제안처리기구’를 만들어 제안점이나 문제점을 즉시 처리해 그 결과를 통보하겠다. 신뢰와 신의, 화합을 통해 구성원에 의한, 구성원 중심의 대학으로 운영하겠다.

Q10. 권력형 인권침해 방지 정책은.

성적 자율권에 대한 인식과 인격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인식개선 및 예방을 위한 전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내용 중심의 정례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교직원과 학생이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겠다. 또 사후 처리를 위한 신속한 24시간 연계 대응체계 구축,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등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

Q11. 거액의 지원금을 받고 시행 중인 사업(예 : LINC+ 사업, 소프트웨어중심대학)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한 방침은.

이런 제도는 학생들의 사회 진출이나 사회 적응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해야 한다. LINC+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대학 자체에서 확대 실시해야 한다. 이 제도는 우리 졸업생의 사회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업이 성공하려면 교육적 하부구조가 강해져야 한다. 인간의 삶은 점차 알고리즘의 세계로 변하고 있다. 인공지능 활용 여부가 모든 학문의 성패를 결정하는 시대다. 인공지능의 것밭 아래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 인공지능을 모든 전공분야에 접목할 수 있도록 기반 교육을 확충하고 인공지능 교육을 통한 인문학 혁명을 창출하겠다.

Q12. 총장 예비 후보자 가운데 유일한 의사 출신이다. 대학 운영 경험이 없다는 우려가 있는데, 의사 출신으로 총장이 된다면 대학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 것인지 궁금하다.

지난 5년간 대학 거버넌스 추진 위원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대학 행정도 많이 파악하고 있다. 경희의료원 종합기획조정실장과 병원장을 역임했는데, 업무추진 과정에서 대학과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의 경영과 행정, 재정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 자리였다. 또 경희의료원의 예산 규모는 대학을 훨씬 능가하는 수준이며 병원 경영은 구성원의 다양성과 업무의 다변성으로 인해 매우 까다로운 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경희의료원을 국가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1위의 자리에 올리는 성과를 올렸다. 아울러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의학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 회장 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 직무 또한 수행하고 있다. 이같은 현장 경험은 총장으로서 대학을 경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